

通信使 研究의 現況과 課題

張 舜 順

I. 머리말	4) 문화교류
II. 통신사의 범위와 성격 규정	5) 상호인식
III. 한국에서의 통신사 연구	6) 문학
1. 조선전기 통신사 연구	7) 기록류
2. 조선후기 통신사 연구	8) 기타
1) 對日外交體制	IV. 통신사연구의 과제와 전망
2) 外交使行	-맺음말을 대신하여
3) 경제(무역)와 倭館	【한국내의 연구목록】

I. 머리말

통신사의 왕래는 양국의 중앙정부(朝鮮國王↔幕府將軍)간에 있었던 직접적인 교류였기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관계 내지 의의도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및 상호인식 등 거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통신사의 왕래에 의한 양국의 交聘은 조선시대 한일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통신사에 대한 연구는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양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¹⁾ 이러한 연구의 차이는 통신사가 어느 한 나라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 두 나라가 함께 연출한 국제적 행위였던 만큼 양국의 입장이 냉정하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심의 시각을 일반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손승철에 의하면 일본에서 통신사 관련 연구논문이 한국의 10배 이상 발표되었다고 한다 (2002, <조선시대 通信使研究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 16, 53~54쪽).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그 동안 한국측에서 이루어진 연구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범위는 지역적으로는 한국에 한정하는 만큼, 한국에서 발표된 외국인의 연구물도 함께 포함한다. 그것은 외국인들의 연구물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국내에서의 연구성과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Ⅱ. 통신사의 범위와 성격 규정

通信使란 조선시대 朝鮮國王의 명의로 일본의 최고통치자인 幕府將軍(足利·德川 幕府)에게 보낸 공식적인 외교사절로 幕府將軍에 대한 慶賀나 弔問, 기타 두 나라의 긴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절을 말한다. 이들은 조선국왕의 國書와 禮單을 지참한 중앙 관리 3인을 비롯하여 총 470~500여명으로 편성되었다.²⁾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된 시기는 조선시대 全時期에 해당되며, 일본에서는 室町時代 초기부터 戰國時代를 거쳐 江戸時代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그 성격이나 형태는 양국의 독자적인 정치양상과 넓게는 동아시아의 국제적 양태를 반영하고 있고,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곤란한 면도 있다. 그러나 正使 朴瑞生, 副使 李藝, 書狀官 金克柔를 三使로 한 사절로 통신사의 명칭을 가지고 처음으로 일본에 파견된 1429년(세종 11) 통신사행에 의하면 조선이 파견한 통신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목적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朝鮮國王으로부터 日本國王(幕府將軍)에게 파견된다. 둘째, 일본국왕의 吉凶 또는 양국간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갖는다. 셋째, 조선국왕이 일본국왕에게 보내는 國書와 禮單을 지참한다. 넷째, 사절단은 중앙의 고위관리인 三使 이하로 편성한다. 다섯째, 國王使의 칭호를 갖는다.³⁾

조선전기 통신사 명칭으로 일본에 파견된 사절은 1413년(태종 13), 1429년(세종 11), 1439년(세종 21), 1443년(세종 25), 1460년(세조 5), 1479년(성종 10), 1590년(선조 23), 1596년(선조 29) 총 8차례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사절의 發病과 일본측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1413년, 1460년, 1479년 사행은 실행되지 못하였고, 1429년, 1439년,

2) 통신사의 개관에 대해서는 손승철, 2002, <조선시대 通信使研究의 회고와 전망>, 《韓日 關係史研究》 16, 42~47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3) 三宅英利(김세민 외 옮김), 1996, 《조선통신사와 일본》, 지성의 샘, 42쪽.

1443년, 1590년, 1596년 5차례의 사행만이 시행되었다.⁴⁾ 그리고 임진왜란의 발발로 인하여 두 나라의 국교가 단절되면서 통신사의 왕래도 자연히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통신사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임진왜란 종식 후 새롭게 일본의 정권을 장악한 德川幕府 초기의 일이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두 나라의 講和交渉은 조선과 德川幕府, 對馬島의 實利가 맞물려 있었으므로, 의외로 빨리 진척되어서 전쟁이 끝난 후 수년만인 1604년(선조 37)에 승려 惟政과 孫文彥이 探賊使로 대마도를 거쳐 京都로 가면서 시작되었다. 德川家康과 德川秀忠을 만난 통신사는 일본의 國情을 살피고 귀국했다. 한편 조선정부는 조선에서 제시한 德川將軍의 國書와 犯陵賊 박송이라 하는 조건이 이행되자 1607년에는 正使 呂祐吉 일행을 回答兼刷還使로 江戸에 파견하였는데, 이는 조선 후기 통신사의 파견의 시작이다. 그리고 2년 후인 1609년(광해군 1)에는 양국간의 國交 정상화 조약인 己酉約條가 체결되고, 1611년에는 세견선이 정식으로 도항해옴으로써 비로소 양국간의 외교관계와 교역이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⁵⁾

1607년부터 시행된 조선 후기 통신사는 12차례 파견되었다. 그러나 임란직후인 1607년·1617년·1624년에 파견된 사행의 정식 명칭은 ‘回答兼刷還使’였다. 따라서 사행의 공식 명칭이 ‘回答兼刷還使’로 새로운 외교체제가 정립되지 않았던 과도기적 단계에서 파견되었다는 점을 들어 일반의 통신사행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거나⁶⁾, 아예 이를 통신사의 범주에서 제외할 것⁷⁾을 주장하기도 한다.⁸⁾ 실제로 당시에도 ‘回答兼

4) 이현중은 《朝鮮前期對日交涉史研究》(1964, 한국연구원)에서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사신을 모두 ‘통신사’라고 하였다. 손승철과 三宅英利은 조선전기에 조선사절의 일본파견은 18회에 달하였는데, 통신사의 호칭으로 장군에게 간 것은 8회(1428년·1439년·1443년·1460년·1475년·1479년·1590년·1596년)에 달한다고 하여 통신사의 횟수를 8회로 잡고 있다.(손승철, 위의 논문 34쪽, 三宅英利, 1986,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그러나 실제로 1460년·1475년·1590년의 사행은 正使의 發病이나 조난 등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으므로 조선전기의 통신사의 일본파견은 5회였다고 할 수 있다.

5) 임진왜란 이후 국교재개를 위한 조일양국 강화사의 왕래 및 교섭과정에 대해서는 손승철, 1994, <임란 이후 중화적 교린체제의 부활>,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에 잘 정리되어 있다.

6) 하우봉, 1992, <王亂以後의 釜山과 日本關係>, 《港都釜山》 9, 부산직할지사편찬위원회, 85쪽.

7) 이원순, 1994, <조선통신사의 올바른 이해>, 《조선통신사》(신성순·이근성 저, 중앙일보사)

홍성덕, 1998, <十七世紀 朝·日 外交使行 研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7~99쪽.

홍성덕, 1998, <통신사는 신의의 상징인가, 조공의 상징인가>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2, 자작나무, 156쪽.

8) 물론 ‘회답겸쇄환사’를 통신사의 범주에 넣어 파악하는 학자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三

刷還使'의 파견 여부와 명칭 문제를 두고 조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거듭되었다. 일본 측에서는 화의를 맺는 交隣使節로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조선으로서는 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웠고, 일본내 德川幕府의 장래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존재하였던 터였으므로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수 없었다. 결국 1607년 사행에 대한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에서는 '通諭使', '回答使', '通信使' 등 논의가 분분하였으나⁹⁾ 결국은 국교재개를 요청하는 幕府將軍의 國書에 회답한다는 명분과 함께 전쟁시 잡혀갔던 피로인 송환이라는 임무를 더하여 '回答兼刷還使'라고 하였던 것이다.¹⁰⁾

국교재개 이후 통신사행(1607년, 1617년, 1624년), 곧 回答兼刷還使의 파견이 일본으로서 德川幕府의 국제적 위용 과시와 국내 제후에 대한 지배 강화 등 幕藩體制의 존립에 통신사를 활용하는 등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실리외교의 결과물이었다면, 조선으로서는 초기 3차의 통신사를 '回答兼刷還使'로 개칭함으로써 국교재개를 위한 명분과 전쟁포로의 쇄환이라는 실리를 함께 얻으려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즉, 당시 조선의 국가적 명분으로서는 비록 사절이 통신사의 성격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명칭은 통신사가 아닌 '回答兼刷還使'로서의 파견만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후 이러한 성격의 回答兼刷還使는 1617년과 1624년 두 차례 더 파견되었다.

그러나 회답겸쇄환사의 사절단 편성이나 여정이 통신사행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朝鮮王朝實錄》·《通信使謄錄》·《增正交隣志》·《通文館志》등 조선정부의

宅英利와 中村榮孝이다. 中村榮孝는 조선후기 조일관계의 전개 양상을 1607년 회답사와 1609년 기유약조 체결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래 큰 성격변화 없이 일관되게 파악하였다. 즉 1607년의 회답겸쇄환사의 파견을 '교린관계의 복구'로, 기유약조의 체결을 '교린체제의 갱신'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통신사에 대해서도 초기 3회의 회답겸쇄환사와 그 후 9차의 통신사를 포함하여 12회의 통신사행으로 파악하였다.(中村榮孝, 1969, <江戸時代の日鮮關係> 《日鮮關係史の研究》下, 吉川弘文館,)

三宅英利는 통신사제의 변화에 따른 시기구분을 시도하였다. 그는 조선후기(江戸時代)의 통신사에 대해 ① 막번체제확립기의 통신사(3차의 회답겸쇄환사), ② 막번체제안정기의 통신사(1636, 1643, 1655, 1682년의 사행) ③ 新井白石의 制度改變과 통신사(1711년 사행) ④ 막번체제전개기의 통신사(1719, 1748, 1763년의 사행) ⑤ 막번체제동요기의 통신사(1811년의 사행)로 구분하였다.(三宅英利,《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1986) 그의 연구는 통신사에 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제시하고 있다. 특히 통신사행의 실제적인 목적을 밝혀낸 점과 시기구분, 개념정의의 제시 등은 통신사행의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시기구분 기준은 일본 국내의 政情變化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해 틀로서는 부적당한 면이 있다.

9) 《宣祖實錄》 39년 8월 23일(기미).

10) 《宣祖實錄》 40년 1월 5일(기사)

기록이나 사행에 참여하였던 사행원들의 기록을 보면 당시인들도 초기 ‘回答兼刷還使’를 조선전기의 통신사와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¹¹⁾ 한편 2차·3차 회답겸쇄환사의 기능이 1차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나, 조선후기 처음으로 통신사라는 명칭으로 일본에 갔던 1636년 사행의 경우도 국제적으로 명 중심의 冊封體制가 붕괴되고 조선과 일본 양국 모두 국내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상황 속에서 중국대륙에서의 급격한 정세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외교정책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초기 回答兼刷還使와 通信使는 그 성격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통신사파견이 정례화 된 이후 통신사의 파견목적은 표면적으로 대부분이 ‘장군습직의 축하’였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때마다 초기의 통신사(회답겸쇄환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1636년은 물론이거니와 1643년은 淸의 압력에 대한 견제와 兼帶制度和 島源의 亂에 대한 國政探索, 1655년의 통신사는 일본이 ‘假道朝鮮’한다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1682년은 대마도와의 무역통제를 위한 7개조의 朝市約定 등의 현안문제가 있었다. 즉 청나라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국제정세가 다시 균형을 이루는 17세기 후반까지도 통신사는 回答兼刷還使와 같은 정치사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초기의 회답겸쇄환사와 통신사는 조선후기 통신사로 함께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오면서 통신사는 양국의 외교적인 현안문제해결보다는 장군습직축하로 의례화되면서 정치사절에서 문화사절로 그 성격의 전환이 있게 되었다.

1811년 이후에는 통신사의 여정을 바꾸어 對馬島에서 易地通信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통신사의 파견이 양국 어디에도 유리하지 않은 국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정부로서는 처음부터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은 행사였고, 德川幕府도 지배체제를 확립한 이상 통신사의 힘을 빌어 幕府의 권위를 높여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양국을 중계하는 對馬島의 입장에서조차 경제적 실익보다 손실이 늘어나고 있었다.¹²⁾ 한편 19세기 중반 동아시아 세계가 서구세력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결국 통신사는 1811년 사행을 끝으로 더 이상 파견되지 않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라 하면 ‘조선후기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사절’이라는 전제 하에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즉, 조선후기 對日本外交使節로 인식하고 조선후기 또는

11) 《光海君日記》 2년 3월 6일(임오), 14년 1월 22일(무오)

1607년 제1차 回答兼刷還使의 隨行文官 蔣希春은 자신의 사행록 《海東記》에 스스로를 ‘三信使’라고 기재하고 있다.

12) 金文植, 2002, <조선후기 通信使行員의 對日認識> 《大東文化研究》 41, 성균관대대동문화연구소, 132~133쪽.

일본의 江戸時代로 한정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신사는 조선 후기에만 파견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일본에 파견된 조선의 국왕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통신사가 조선후기 대일본 외교사절로 인식되었던 이유는 조선시대 통신사가 日本의 足利政權・豊臣政權・徳川政權의 최고통치자에게 보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사의 틀 속에서 중세에서 근세로의 변화에 주목한 일본의 연구자들이 徳川政權의 근세적 특성만을 강조한 결과이다. 이러한 일본학계의 연구경향이 우리 학계에 그대로 수용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對日本外交에 있어서 조선은 전기와 후기의 조일관계와 외교체제를 일관되게 파악하고 있었고, 信義로서 이웃나라를 대한다는 ‘交隣政策’을 일관되게 시행하였다. 물론 임진왜란을 계기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조선은 동일 왕조 하에서 事大交隣이라는 외교정책의 근본을 유지하였으며, 通交體制와 對日認識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었다.¹³⁾ 따라서 조선시대 통신사는 전기와 후기를 연속선상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시대 통신사를 조선후기의 對日使行만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Ⅲ. 한국에서의 통신사 연구

1960년부터 2002년까지 발표된 조선시대 통신사 관련 논저는 발표시기와 연구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해보면 다음 <표1>과 같다.¹⁴⁾

13) 하우봉, 1997, <朝鮮後期 韓日關係에 대한 再檢討> 《東洋學》 27-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365쪽.

14) 한국에서의 통신사관련 연구현황은 《韓國史研究彙報》(국사편찬위원회) 《한일관계사 논저목록》(한일관계사학회) 《한국사논저 분류총목》(김동수 편), 한국사서지검색(www.hongik.ac.kr/~khc),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한일관계사학회, 2002)의 한문중, <조선전기의 회고와 전망>, 민덕기, <조선후기의 회고와 전망>, 손승철, 2002, <조선시대 通信使研究의 회고와 전망> 《韓日關係史研究》 16, 한일관계사학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표 1> 한국에서의 통신사연구 현황

	외교 체제	상호 인식	제도	기록	문학	문화 교류	경제 (무역)	왜관	복식	선박	음식	회화	계
1960			1		2								3
1970	2		2		1							1	6
1980		2	6	2	4	4			2				20
1990	6	17	13	5	12	10	1	2		1	1	3	71
2000	1	8	8	1	2	2			2		1	2	26
계	9	26	30	8	20	16	1	2	4	1	2	6	127

한국에서의 통신사 연구에 대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일본에 비한다면 연구의 역사가 대단히 짧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현재까지 약 120여편이 넘는 논문이 나왔으며, 1990년대 이후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표 1>에 의하면 분야는 제도분야가 가장 많고, 상호인식·문학·문화교류·외교체제·기록류 順이다. 한국에서의 통신사행 연구를 보면 처음에는 국문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일본 현지에서 통신사행원들이 행한 詩文交流 및 筆談唱和 등을 문학 내지 문화교류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많았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한일관계 내지 교류사의 연구가 그렇듯이 통신사에 대한 1960년 이전의 연구성과는 全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당시 한국사회가 한국 이외의 타지역에 눈을 돌릴만한 여유가 없었던 시대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제의 강점 경험에 대한 반감뿐만 아니라 일본과 국교가 단절된 상태에서 ‘反日政策’이 지속된 시대적 상황 등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1960~70년대에 들어와서는 ‘韓日修交’와 ‘경제개발’ 및 ‘냉전구도’에 따른 협력 구축 등의 면에서 국내의 일본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의식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재일한국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통신사연구가 자극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통신사 연구를 비롯한 한일관계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¹⁵⁾

15)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는 통신사연구의 붐이 일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李進熙·姜在彦·辛基秀를 비롯한 재일한국인 연구자들의 事蹟發掘과 계몽활동에 의해서였으며, 이들에 의해 통신사의 존재가 일반 일본인에게 인지되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들은 개별적인 연구나 저서들을 통해 통신사를 朝貢使節로 파악하였던 기존의 일본학계에 反論을 제시하며 통신사의 올바른 이해와 대중화를 시도하였으며, 한국에서의 통신사 연구에도 자극을 주었다. 이들 연구의 특징은 대부분 문화교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과 일본 현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에 관한 소개이다. 이것은 그들의 활동 공간이 일본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일본에서의 통신사 연구는 손승철, 2002,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통신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상호인식·문화·문화교류 등 문화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1982년에 있었던 ‘교과서 문제 파동’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통신사 연구에 있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용이하였던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신사연구의 접근이 이루어졌고, 연구의 양적 증가도 괄목할만하게 성장한 시기였다. 그 배경으로는 1980년대 들어와 사회 전반적으로 反日 분위기가 완화된 것을 비롯하여, 1986년 아시안게임·1988년 서울 올림픽의 개최 등으로 한일 양국관계가 우호적으로 발전하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을 들 수 있다.¹⁶⁾ 특히 해외여행의 자유화로 한국사회가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더불어 역사학 분야에서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맞물리면서 통신사 연구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1990년대 이후 국제적인 냉전구도의 해체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의 향상, 경제발전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세계화(Globalization)’의 요인 등에 힘입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92년의 <韓日關係史學會>와 1994년의 <日本歴史研究會>라는 對日關係 전문학회의 창립과 학회지의 창간으로 전문연구자들이 상호간의 공동연구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게 됨으로써 연구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1. 조선전기 통신사 연구

조선전기 통신사에 관한 연구는 李鉉淙, 河宇鳳, 韓文鍾, 金聲振, 李自捐, 김문자, 田中敏昭의 논문이 있다.¹⁷⁾ 이 가운데 몇몇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연구라기보

<조선시대 通信使研究의 회고와 전망> 《韓日關係史研究》 16(한일관계사학회, 2002)와 米谷均, <일본에 있어서 근세 日朝關係史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에 잘 정리되어 있다.

16) 이훈, 2001, <韓國에 있어서의 韓日交流史 研究와 現狀과 課題> 《日本學》 20,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7) 李鉉淙, 1964, <조선전기 대외사절과전의 종별과 의의> 《史學研究》 17, 한국사학회(<조선전기 대일교섭사연구>(한국연구원, 1964)에 <對倭使節派遣>으로 수록됨)
韓文鍾, 1989, <조선초기 李藝의 對日交涉活動에 대하여> 《全北史學》 11·12합집, 전북대 사학회,

다는 사절왕래에 관한 논문이나 조선후기 통신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후기의 그것에 비해 연구성과가 극히 빈약하다. 따라서 통신사의 초기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먼저 이현중은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하는 사절을 파견목적과 구성, 파견지역, 往還路, 사절의 종별 및 성격, 접대, 사절의 왕래에 따른 영향 등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고, 한문중은 조선전기 대일사절의 파견실태를 각 왕대별, 명칭별로 개관하고 대마도에 파견한 사행(通信官·回禮使·報聘使·賜物管押使·體察使·敬差官, 致奠致慰官, 宣慰使(官), 垂問使)의 종류와 연원, 임무와 역할 등을 분석하여 조선과 대마도간의 외교관계가 어떻게 형성 전개되었는가를 고찰하였지만, 이들 논문들은 모두 조선에서 파견한 사절의 종류와 역할 등을 다룬 글들로 본격적인 통신사 논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편 하우봉은 대일 사행원 가운데 李藝, 宋希瓚, 申叔舟 등의 일본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초기 지식인의 일본관을 규명하고 있다. 그는 이들 對日使行員들의 일본인식은 조선의 對幕府政策 및 對對馬島政策의 결정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는데, 한 예로 ‘多元的 通交體制’라는 조선전기 대일정책 또한 그 결과물의 하나라고 파악하였다. 김성진은 조선전기 통신사를 중심으로한 조일 양국간 문학적 교섭 형태를 조망하고, 현전하는 기록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中順堂集》이나《朴判事日本行錄》등 不傳使行錄의 성격을 究明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에 집중되었던 통신사행에서 이루어진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가 조선전기로 연구영역이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자연은 조선전기 통신사와 일본사신 간의 교역품 가운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중심으로 양국간의 복식문화 교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김문자와 田中敏昭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야에 었던 풍신정권의 통신사 파견요청에 관한 연구인데, 이들 연구는 임진왜란의 원인 분석에 좋은 자료가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듯이 조선전기 통신사가 일본에 간 것은 5회나 됴에도 불구하고

河字鳳, 1990, <朝鮮初期 對日使行員의 日本認識> 《國史館論叢》 14.

韓文鍾, 1992, <朝鮮前期 對馬島敬差官> 《全北史學》 15, 전북대 사학회.

韓文鍾, 1996, <朝鮮前期 對日外交政策 研究-對馬島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김문자, 1994, <島井宗室과 1590년 通信使 派遣問題에 대해서> 《詳明史學》 2.

田中敏昭, 1996, <壬亂前의 豐臣政權과 對馬島主宗氏의 朝鮮外交:總無事令을 中心으로>,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金聲振, 2000, <朝鮮前期 通信使의 不傳行錄에 對하여> 《문창어논문집》 37, 문창어문학회.

이자연, <朝鮮前期 朝鮮通信使와 日本使臣 間의 交易品을 통하여 본 服飾文化研究-일본으로부터의 收入品을 중심으로-> 《服飾》 52-4, 한국복식학회,

고, 연구는 내용이나 양적인 면에 있어서 후기의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신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료의 발굴과 다양한 연구가 요망된다.

더구나 조선정부가 일본정부에 파견한 사절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幕府將軍이 조선국왕에게 파견한 日本國王使에 대한 연구는 이지선의 연구가 유일하다. 따라서¹⁸⁾ 조선전기 통신사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본국왕사의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조선후기 통신사 연구

조선후기 통신사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비로소 시작되는데, 李元植·李俊杰·崔博光·김종운 등에 의해서이다.¹⁹⁾ 그러나 이들 연구는 1811년 통신사나 통신사의 여정 등 단편적인 주제를 다룬 것이다. 그후 1980년대에 들어와서 통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통신사의 발자취를 더듬은 金義煥의 《朝鮮通信使의 발자취》(1985, 正音文化社)가 발간되었고, 金龍善이 번역한 中村榮孝 外 著 《朝鮮通信使; 일본은 우리가 키웠다》(1982, 東湖書館), 孫承喆이 三宅英利를 비롯한 일본 연구자들의 논문을 번역하여 편집한 《近世韓日關係史》가 출간되면서 비로소 통신사의 전체 모습을 조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다양한 측면에서 통신사를 조명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문학쪽에서는 김용숙, 송민, 蘇在英, 李慧淳, 朴昌基 崔博光 등에 의해서였다.²⁰⁾ 이경자·弓民峰은 <朝鮮通信使 服飾의 一

18) 이지선, 2002, <朝鮮前期 日本國王使 研究>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 이원식, <純祖11年 辛未日本通信使差遣에 대하여 -對馬島易地聘禮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23, 1973.

김종욱, 1973, <朝鮮後期 通信使點描> 《국회도서관보》 9·10.

이준걸, 1973, <日本派遣 朝鮮通信使의 歷程> 《도서관》 28-2, 국립중앙도서관.

20) 김영숙, 1986, <朝鮮時代 通信使 및 隨行員의 服食> 《문화재》 19, 문화재관리국.

송민, 1986, <朝鮮通信使의 日本語體驗> 《어문학논총》 5, 국민대.

송민, 1987, <朝鮮通信使의 母國語體驗> 《어문학논총》 6, 국민대.

소재영, 1988, <18세기의 日本體驗-《日東壯遊歌》를 중심으로-> 《논문집》 18, 숭실대학교.

이혜순, 1988, <申維翰의 《海遊錄》研究> 《논문집》 18, 숭실대학교.

이혜순, 1996, 《朝鮮通信使와 文學》, 이화여대출판부.

박창기, 1989, <朝鮮時代 通信使와 日本의 文壇> 《일본학보》 23.

研究>(1983, 《服飾》 7)에서 통신사행원들의 복식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고, 하우봉은 통신사관련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1990년에 들어와서는 통신사를 독립된 주제로 한 저서들과 일본측 저서의 번역이 활발해졌다. 이원식은 문화교류적 측면에서 통신사를 검토하였으며²¹⁾, 손승철의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1994), 홍성덕의 《17世紀 朝日外交使行研究》(1998)은 대일외교체제론 및 국교재개 교섭과정과 관련하여 통신사의 성격을 검토한 것이다. 한편 손승철은 통신사에 일반에 대한 본격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는 三宅英利의《근세한일관계사연구》를 번역하였고,²²⁾ 三宅英利의 또 다른 저서인 《近世アジアの日本と朝鮮半島》는 趙學允과 金世民·姜大德·柳在春·嚴燦鎬 등에 의해서 각각 《近世日本과 朝鮮通信使》(1994, 경인문화사)와 《조선통신사와 일본》(1996, 지성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되었다.

1) 對日外交體制

조선의 대일외교정책은 전시기에 걸쳐 ‘交隣’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1990년에 들어오면서 한일관계사에 있어서 논의는 교린의 상대 내지 범위를 확대하여 조일 양국의 중앙 정부에 국한시키지 않고 변경지역까지도 포함하여 보게 되었다. 그 결과 對馬島 및 琉球와 의 관계를 염두에 둔 대일외교체제에 대한 논의가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몇 가지의 관점과 쟁점이 제기되어 있는 단계이다.²³⁾ 이러한 논의는 교

최박광, 1973, <18世紀 韓日間の 漢文學 交流-清泉 申維翰과 新井白石-> 《전통문화연구》 1, 명지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1) 李元植, 1991, 《朝鮮通信使》, 민음사.

22) 三宅英利, 1986,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23) 구체적으로는 임란 후 국교재개 과정에서 시도된 대일외교정책과 외교문서를 소재로 한 것인데,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민덕기의 실로 조선후기의 대일외교가 중국 중심의 책봉체제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전기 이래의 독자적 대외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에 따르면 조일관계는 조선의 주변국 및 지역 사이에 이미 존재해 있던 ‘대등’관계, 또는 ‘상하’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막부에 대해서는 ‘적례적 교린’으로, 대마번에 대해서는 ‘기미적 교린’으로 대응하였다는 소위 ‘교린’의 이중성을 제시하였다. 다른 하나는 손승철에 의해서 제기된 것으로 그는 1403년 室町幕府의 足利義滿이 명의 책봉을 받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편입되면서 조선국왕과 幕府將軍과의 관계가 비로소 국가 대 국가간의 대등관계, 다시 말하면 중화적 교린관계에 놓이게 되며, 막부 이외의 통교자에 대해서는 羈縻의 交隣關係에 편입시킨 二重의인 交隣이었다는 것이다. 조선은 임진왜란 직후의 조일 국교 회복 때에도 역시 中華의 교린체제를 부활시키려 했지만, 17세기 중엽 명청 교체로 幕府將軍에 대한 명의 책봉이 불가능하게

린정책을 바탕으로 구축된 조일관계를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통교 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교체제에 관련된 연구로는 壬亂後 강화교섭 과정과 回答兼刷還使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 중 全海宗, 金文子, 李敏昊의 논문들은 임란직후의 강화교섭과정과 回答兼刷還使가 파견되는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²⁴⁾ 특히 김문자는 조일명간에 이루어진 삼국간의 교섭에 관해 언급하였다. 이에 손승철은 회담검쇄환사에서 통신사로 넘어가는 과정을 中華의 交隣體制에서 脫中華의 交隣體制的 변화로 해석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하다. 유재춘은 1차~3차 통신사행의 일본 파견시 조선국왕과 막부장군간에 교환된 국서와 외교마찰을 개괄하고, 통신사의 파견을 둘러싸고 논의된 국서개작 논쟁에 있어서 1606년의 德川家康의 서계는 애초부터 대마도에서 위조한 것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견해이며, 이 서계는 위조한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德川家康이 보내 온 것을 대마도에 개작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²⁵⁾ 따라서 그에 따르면 임진왜란 이후 국교재개는 조선전기의 다원적 외교관계와는 다른 성격으로서 朝鮮國王과 幕府將軍간에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일에 의해 1636년, 43년, 55년 등 세 차례에 이루어진 日光山 致祭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통신사를 통한 양국 외교

되자, 청을 배제한채 모색된 새로운 외교관계가 탈중화적 교린체제였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 24) 손승철, 1994,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전해중, 1977, <壬亂後의 對日關係>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李元植, 1973, <純祖十一年 日本通信使差遣에 對하여-對馬島易地聘禮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23.

김문자, 2000, <임진왜란에 있어서 명·일 강화교섭과 조선> 《사명당유정》.

이민호, 1993, <壬亂과 한·중·일의 外交關係>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해군군사연구실.

이민호, 1998, <孝宗朝의 對日外交> 《東西史學》 4.

이민호, 1997, <임진왜란과 대일국교재개의 서막> 《황산 이흥종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유재춘, 1987, <국교 재개와 국서 개작사건> 《근세한일관계사》, 강원대학교 출판부.

최종일, 1998, <조선통신사의 日光山致祭 연구>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 25) 1606년 덕천가강의 국서의 진위에 대해 종래 일본인 학자의 상당수는 이 국서가 덕천가강과는 전혀 상관없이 쓰시마가 임의로 위조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일관계사를 연구하는 기본시각으로 볼 때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쓰시마의 독단적인 행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당시 일본과의 외교 성격이 전혀 다른 입장에서 해석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쓰시마의 독단인 경우, 강화교섭 자체가 막부 즉, 일본 중앙 정권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이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킨 것은 막부가 아니고 쓰시마라는 의미가 되므로, 막부의 체면과 명분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갖기 때문이다.

의례에 관해 많은 시사를 제공해준다. 또한 장용걸은 통신사가 가지는 의례적 의미가 양국의 국경을 넘어서 양면적 의미-의례적 양의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²⁶⁾

2) 外交使行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통신사를 독립된 주제로 하여 검토한 연구들이 나왔다. 이 원식에 의해 통신사와 선린외교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가 있으며, 1811년 통신사에 관한 연구가 있다. 통신사 편성과 노정에 관한 개설적인 논문으로는 이민호의 연구가 있으며, 張舜順의 製述官과 姜信沆의 譯官에 관한 연구논문이 있다.²⁷⁾ 특히 장순순은 제술관이 명·청에 파견되는 중국사행에는 없는 직책으로 통신사행에만 보이는데, 이것은 통신사행 중 일본의 문인 및 관리들과의 筆談唱和에 대비하기 위한 임무 때문이었다고 서술하고, 통신사행의 성격이 초기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점차 문화사행으로서 전환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강신항은 倭學譯官과 日本通事의 기능을 비교 소개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 경향은 조선후기 외교사행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통신사라는 범주에만 한정하지 않고 日本國王使(大差倭·막부의 국서를 소지한 대마도 사행)·문위행·年例送使·別差倭 여타의 사행 등으로 논의를 확장하여 상호 비교 연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통신사와 여타의 외교사행에 관련한 종합적 논의로서는 河宇鳳, 洪性德의 연구가 주목된다.²⁸⁾ 아직까지는 제도적 검토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홍성덕

26) 장용걸, 1999, <조선통신사의 의례성에 관한 고찰> 《교육이론과 실천》 9,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7) 이민호, 1984, <조선후기의 통신사행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장순순, 1990,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製述官에 대한 일고찰> 《전북사학》 13.

강신항, 1993, <韓日兩國 譯官에 대한 비교연구> 《인문과학》 23,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강재언, 2000, <1764年度の 朝鮮通信使의 日本使行에 대하여> 《亞細亞文化研究》 4.

金瑞蘭, 1998, <朝鮮後期 通信使隨行 倭學譯官 研究>,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小林幸夫, 1991, <朝鮮通信使와 民衆> 《일본학연보》 3.

김성진, 2000, <1711년 통신사와 조선의 대응> 《日語日文學研究》 40, 한국일어일문학회.

28) 하우봉, 1991, <朝鮮後期 韓日關係에 대한 再檢討-사절왕래를 중심으로> 《東洋學》 27-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홍성덕, 1990, <朝鮮後期 問慰行에 대하여> 《韓國學報》 59, 일지사.

홍성덕, 1992, <17世紀 別差倭의 渡來와 朝日關係> 《全北史學》 15.

홍성덕, 1996, <朝鮮後期 日本國王使 檢討> 《한일관계사연구》 6.

은 임진왜란 이후 국교재개교섭 과정·기유약조 이후 외교사행의 개편·외교사행의 확립 과정에 대해서 17세기 조일관계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외교사행을 다루었다. 그는 통신사·문위행·연례송사·別差倭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사행과 일본에서 조선에 파견한 사행의 기원과 확립과정에 대하여 살피고 사절의 왕래에 따른 조일 양국의 정책변화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아울러 그는 조선후기 일본국왕사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는데, 이 연구는 조선후기 일본국왕사 연구의 유일한 논문이라고 하겠다. 하우봉은 사절왕래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한일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하였다. 그는 먼저 조선후기 한일관계사를 교린관계 회복기, 교린체제의 확립 및 안정기, 교린관계 쇠퇴기로 3단계로 나누고, 通信使行과 問慰行, 差倭와 같은 사절단의 실상에 대하여 재검토를 시도하였다. 홍성덕과 이훈은 문위행에 대해서 개괄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²⁹⁾ 對馬島가 조선에 파견하는 외교사절, 소위 ‘差倭’는 홍성덕의 논문 외에 이훈에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 표류민을 송환해 오는 대마도 사자인 漂差倭의 성립과 도항실태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이해진은 ‘裁判差倭’의 성립과 조선의 경제적 대응에 대해서 살핀 바 있다.³⁰⁾

통신사와 관련한 이들 사행들의 연구는 아직 제도적 검토의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이들 연구를 통해 통신사의 성격 구명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를 들면 통신사를 독립된 주제로 하여 인적 구성이나 파견 배경, 도항 실태 등 통신사 자체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한국사 안에서 통신사 파견과 국내정세 및 정치세력과의 연관성, 경제적 부담과 파급 효과, 대중국외교와의 관련성 등, 통신사의 정치·외교·

홍성덕, 1998, <十七世紀 朝・日 外交使行 研究>,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홍성덕, 1999, <조선후기 對日외교사절 問慰行의 渡航人員 분석> 《한일관계사연구》 11.

홍성덕, 2000, <조선후기 對日外交使節 問慰行 研究> 《國史館論叢》 93.

홍성덕, 1998, <통신사는 신의의 상징인가 조공의 상징인가>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역사> 2, 자작나무.

仲尾宏, 1995, <朝鮮朝日本通信使の意義と日韓の將來> (《日本學報》 2, 경상대 일본문화연구소)

신성순·이근성, 1994, 《조선통신사》, 중앙일보사.

29) ‘問慰行’이란 조선이 倭學譯官(일본어 통역관)을 정사로 삼아 막부와는 별도로 대마도에 파견하는외교사행으로써 일본에서는 ‘譯官使’라고 불렀다.

이훈, 1991, <朝鮮譯官使와 對馬島> 《韓日關係學術會議要旨》, 韓國史學會.

30) 이훈, 1991, <朝鮮後期 對馬島의 漂流民 送還과 對日關係> 《國史館論叢》 26.

李惠眞, 1998, <17世紀 後半 朝日外交에서의 ‘裁判差倭’ 성립과 조선의 대응>, 梨花女大사학과 석사학위논문.

경제적 비중을 검토한 연구가 요망된다고 하겠다.³¹⁾

3) 경제(무역)와 倭館

통신사 및 조선시대 한일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경제분야와 앞으로의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통신사가 파견되면 幕府와 일행이 통과하는 일본의 여러 藩들은 많은 재정적 피해를 감수해가면서 통신사의 접대에 최선을 다하였고, 통신사를 접대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경비는 막부나 여러 번에 있어서 확실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1811년 신미통신사 이후 통신사 중단의 중요한 원인이 경제적 부담에 기인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통신사와 경제(무역)관련에 관한 연구로는 정성일의 논문이 있을 뿐인데, 그는 먼저 통신사의 경제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역지빙례가 실시된 1811년 辛未通信使를 중심으로 통신사와 무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먼저 통신사가 조선후기 對日貿易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전제로서 1811년 당시 사행에 참여하였던 구성원의 수와 명단, 그리고 일정 등을 한일 양국의 사료를 종합해서 정리하였다.³²⁾ 먼저 빙례에 참가한 336명 전원의 명단을 찾아내서 분석함으로써 역지빙례의 실시가 양국의 재정긴축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성공했음을 밝혔으며, 또한 1811년 역지빙례통신사단절의 원인을 구명하고 있다.³³⁾ 한편 그의 연구에 의하면 易地通信의 실시가 조선측에게는 對日公貿易의 만성적 적자를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일본측에서는 통신사행 당시 일본내에서 이루어진 경비조달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한국측에서는 조선정부의 통신사 파견 결정과 준비과정, 그리고 부산까지의 여정에 소요된 조선측 경비의 조달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신사의 성격 및 위상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행을 둘러싼 두 나라의 경비조달 및 그것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다양한 연구가 요망된다.

한편 왜관을 독립 주제로 한 연구는 이미 1960년부터 있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일 양국의 교류에 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도사·교섭사·지역사·생활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다양한 연구들이 나왔다. 그 결과 왜관을 둘러싼 한일 교류의 모습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행과 관련된 연구는 없다.

31) 이훈, 2001, <韓國에 있어서의 韓日交流史 연구의 現狀과 課題> 《日本學》 20, 151쪽.

32) 정성일, 1991, <對馬島易地聘禮에 참가한 通信使> 《호남문화연구》 20.

33) 정성일, 1991, <易地聘禮 실시전후 對日貿易動向> 《經濟史學》 15.

주지하다시피 왜관은 통신사행에 관한 모든 준비와 실무교섭이 이루어졌던 곳이며, 통신사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공간이다. 통신사와 왜관에 관한 연구는 최영희와 김의환에 의해서 시도되었지만³⁴⁾, 이들 연구는 지극히 개설적일 뿐만 아니라 왜관의 기원과 변천, 草梁倭館의 성립과 구조를 살핀 연구로 왜관 단독 연구의 성격이 짙어서 본격적인 통신사 관련 연구라고 할 수 없다. 통신사와 관련하여 왜관에서 이루어지는 조일 양국의 외교교섭 형태 연구는 통신사의 올바른 이해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개척분야로 남아 있으며,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4) 문화교류

문화교류의 분야에는 이원식·하우봉·김태준 등의 연구가 있다.³⁵⁾ 李元植은 《朝鮮通信使》를 통하여 통신사행 중에 이루어진 筆談唱和에 관하여 풍부한 자료소개와 함께 문화교류의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그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수집을 하였고, 《海行摠載》에 누락된 사료를 찾아내어 소개하고, 필담내용 등을 분류 정리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한일관계사 연구자들이 관련 기초자료

34) 최영희, 1991, <朝鮮後期 通信使와 倭館의 役割> 《조선후기 한일관계학술회의강연회 발표요지》, 한국사학회.

김의환, 1991, <釜山の 草梁倭館과 對日通信使 外交> 《한일교류사》.

35) 이원식, 1991, 《조선통신사》대우학술총서 59, 민음사.

이원식, 1991, <통신사가 남긴 문화> 《한일교류사》.

이원식, 1991, <通信使行과 文化交流> 《韓・日關係學術會議 발표요지》.

이원식, 1991, <조선통신사와 한·일 문화교류> 《2001평화의 행진 한·일공동심포지엄 기조강연문》.

이원식, 1999, <한일선린외교와 朝鮮通信使> 《史學研究》 58·59 합집, 한국사학회.

임성철, 1985, <朝鮮通信使往還における日本側の接待問題> 《論文集》 3, 부산외대.

임성철, 1985, <朝鮮通信使往派遣路交渉狀況의 展開> 《文化研究》 1, 부산외대.

임성철, 1987, <朝鮮通信使의路程記研究> 《釜山外大論叢》 5, 부산외대.

하우봉, 1998, <조선후기 實學과 古學의 비교연구시론> 《한일관계사연구》 8.

권오봉, 1994, <조선사행을 통한 日本江戸幕府의 韓國儒學受容> 《韓國漢文學과 儒敎文化》蒼谷金世漢教授停年退職紀念論叢.

김태준, 1988, <18세기 한일문학교류의 양상:江關筆談을 중심으로> 《논문집》, 숭실대학교.

Ronald P. Toby(朴銀順 역), 1988, <朝鮮通信使와 近世日本の 庶民文化-회화;민화;제례제연> 《동양학》 18,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신기수, 1991, <통신사의 길에 비친 한일교류> 《한일교류사》

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하우봉은 조선 후기 實學과 일본의 古學을 비교하고 있으며, 김대준은 江關筆談의 분석을 통해 통신사행 중에 문화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사례를 들어 서술하였다. 박창기는 통신사와 일본 학계의 문화교류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³⁶⁾ 통신사가 일본의 사상계와 문단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편 芳賀登은 통신사행이 江戸時代 일본 문화에 끼친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고, 이것이 18세기 후기에 와서 일부 폐쇄론자의 주장에 따라 통신사 왕래가 두절되었다고 보고, 일본에서의 國粹主義의 대두, 대륙침략의 국체 성립을 개관하여 다루고 있다.³⁷⁾

5) 상호인식

상호인식에 관한 분야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연구된 분야로,³⁸⁾ 주로

-
- 36) 박창기, 1989, <朝鮮時代 通信使와 日本의 文壇 -1711년 使行時 林家 및 木下順庵門과의 交 流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23, 한국일본학회.
박창기, 1991, <조선시대 通信使와 일본 荻生徂徠門의 문화교류-1711년 使行時의 交流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27, 한국일본학회.
- 37) 芳賀登, 1982, <朝鮮通信使의 발자취> 《韓國學論叢》 2,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38) 이원식, 1997, <通信使記錄을 통해 본 對日本認識> 《國史館論叢》 76.
하우봉, 1994, <元重舉의 日本認識> 《韓國史學論叢》, 李基白先生古稀紀念論文集.
李成厚, 1992, <金仁謙의 歷史認識> 《韓國學論叢》, 香山下廷煥博士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김정일, 1993, <1636년 通信使와 조선의 대마도인식> 《淑明韓國史論》창간호.
정장식, 1999, <1636년 通信使의 日本認識> 《韓日關係史研究》 11.
정장식, 1998, <1655년 通信使行과 日本研究> 《日本學報》 44, 한국일본학회.
정장식, 2001, <癸未(1643년)通信使行과 日本認識> 《日本文化學報》 10.
정장식, 2001, <1636년 通信使의 日本認識> 《문명연지》 2-2, 한국문화학회.
정장식, 2001, <壬戌使行과 朝日關係> 《日本學報》 47, 한국일본학회.
정장식, 2002, <1711년 通信使와 朝鮮의 對應> 《일어일문학연구》 40, 한국일어일문학회.
김성진, 1996, <조선 후기 통신사의 기행시문에 나타난 일본관연구> 《도남학보》.
김영규, 1990, <조선 후기의 대일항례외교와 대마도번의식-通信使行錄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황창윤, 1991, <조선통신사인식에 대한 재검토>,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이재원, 1995, <18세기 일본지식인의 조선인식에 관한 일고찰:雨森芳洲와 新井白石의 조선인식을 중심으로>,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배수영, 1997, <趙巖의 《海槎日記》를 통해 본 일본인식>,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통신사행에 참여한 사행원들이 귀국 후 남긴 사행록을 소재로 한 분석이 많다. 예를 들면 이원식·하우봉·이성후·김정일, 정장식 등이 그것이며 이외에도 5편의 석사 학위논문이 있어 의욕적으로 연구되는 분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원식과 하우봉은 조선인의 일본인식을 다루었고, 반면 이재원은 일본지식인의 조선인식을 다루어, 이들의 논문을 통하여 양국인의 상호인식을 단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한태문은 1763년 통신사행에 역관으로 참여한 이언진을 중심으로 삼사를 제외한 사행 구성원들의 문학과 의식이 통신사행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행 이후 倭巷人을 비롯한 실학자들에게 對日認識의 전환과 근대적 자각의 단초를 제공하였음을 밝혔다(1997년). 金文植은 먼저 조선후기 對日交涉의 추이를 개관하고, 《海行摠載》에 수록된 사행원들의 일기를 이용하여 일본의 執政者 및 文物에 대한 통신사행원의 인식을 검토하였다. 정장식은 南龍翼의 사행록을 분석하여 통신사들의 일본에 대한 시각이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2000년). 그는 통신사가 일본의 변성함을 보고 겉으로는 화이관에 입각하여 이적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자연과 경제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사행의 성과였다고 보았다. 한편 손승철은 통신사행원을 비롯한 조선지식인들의 천황관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시대 日本天皇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초기에는 천황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일본내 실질적인 외교교

김윤향, 1987, <18세기 申維翰의 일본인식에 관한 고찰-통신사기록 '海遊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한태문, 1997, <李彥瑱의 文學觀과 通信使行에서의 세계인식> 《國語國文學》 34, 문창어문학회.

한태문, 1995, <통신사행록에 반영된 대일 민속관> 《조선장관진교수정년기념 국문학논총》.

한태문, 2000, <[海行摠載]소재 使行錄에 반영된 일본의 通過儀禮와 사행원의 인식> 《한국 문학논총》 26, 한국문학회.

방기철, 1999, <鶴峯 金誠一의 日本觀>,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손승철, 1995, <조선시대 日本天皇觀의 유형적 고찰> 《史學研究》 50.

李慧淳, 1993, <室鳩巢의 賦三韓事蹟詩 小考-18세기 문사의 한국사인식> 《冠嶽語文研究》 18.

원재연, 2000, <조선후기 서양인식의 변천과 대외개방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성후, 1992, <金仁謙의 歷史認識> 《향산변정환박사화갑기념 韓國學論叢》.

한승희, 2002, <己亥通信使의 儀式改正에 대한 새로운 검토> 《韓日關係史研究》 16, 한일관계사학회.

김문식, 2002, <조선후기 通信使行員의 對日認識> 《大東文化研究》 4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섭대상으로서 막부장군에게 관심이 컸던 반면에 임진왜란 이후 조선후기에는 천황의 무력함에 대한 비판과 천황의 복권가능성에 대한 시사 등으로 천황관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재연은 개항기 서양문화의 수용을 통신사들의 서양 인식과 연관하여 파악하고 있다.

6) 문학

통신사 사행문학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소재영·김태준이 엮은 《여행과 체험의 문학·일본편》(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이 가장 대표적인 연구성으로 꼽히고 있으며, 주로 통신사의 사행록과 그들이 남긴 시문들을 문학적으로 분석한 글들이 대부분이다.³⁹⁾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해순과 한태문·김

-
- 39) 장덕순, 1962, <日本紀行의 日東壯遊歌> 《현대문학》 95.
 김용기, 1969, <壬辰倭亂의 被擄人 刷還關係 新資料<海東記>考> 《대구사학》 1, 대구사학회.
 이해순, 1996,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대출판부.
 이해순, 1994, <17세기 통신사행집단의 문학과 의식세계-南龍翼의 <壯遊>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 17.
 김성진, 1996, <朝鮮後期 通信使의 日本文學認識> 《韓國文學論叢》 18.
 김성진, 1996, <南玉의 生涯와 日本에서의 筆談唱和> 《한국한문학회연구》 19, 한국한문학회.
 한태문, 1996, <朝鮮後期 通信使 使行文學의 特徵과 文學史的 意義> 《동양한문학회연구》 10.
 한태문, 1997, <甲子 通信使行記 <東槎錄> 研究> 《人文論叢》 50, 부산대학교.
 한태문, 1995, <朝鮮後期 通信使 使行文學 研究> 부산대박사학위논문.
 한태문, 1993, <委巷文인의 壬戌使行 研究-《東槎錄》과《東槎日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30부산대 국어국문학과.
 한태문, 1997, <朝鮮後期 對日 使行文學의 實證的 研究 - 釜山 永嘉臺 海神祭와 祭文을 중심으로-> 《東洋漢文學研究》 11.
 한태문, 1998, <《東槎錄》所載 書簡에 반영된 韓日文士의 교류양상 연구> 《韓國文學論叢》 23. 한 국문학회.
 한태문, 2001, <17세기 通信使 使行文學의 전개와 문학사적 의의> 《인문논총》 57, 부산대학교 인문 학연구소.
 이동찬, 1996, <癸未 通信使行 記錄의 장르選擇:<海槎日記>와 <日東壯遊歌>를 중심으로> 《韓國文學論叢》 18.
 송민, 1996, <朝鮮通信使의 日本語體驗> 《어문학논총》 5.
 송민, 1997, <조선통신사의 母國語體驗> 《어문학논총》 6.
 管宗次, 2000, <朝鮮通信使의 殘した發口短冊にちいて> 《日本文化學報》 9, 한국일본문

성진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해순과 한태문의 연구는 통신사문학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이 분야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해순은 문화교류의 상징인 필담창화집과 서신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통신사 사행문학의 성립배경과 형성·각 시기별 창화집에 반영된 한일문사고류의 특성·통신사 문학의 한일문학사적 의의 등을 살펴보았다.(1996년) 한태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문학에 관한 통신사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여 조선후기 통신사문학이 갖는 특징을 밝혔다. 아울러 1682년 사행(壬戌使行)에 참여한 두 역관의 사행록을 작가·서술체제·서술태도로 나누어 비교하고, 委巷文學의 특질로서 문화적 우월감의 현실적 한계 인식과 사대부와의 갈등을 고찰하였다.(1993년) 김성진은 통신사의 일본문학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특히 송민은 개별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통신사행에서 만난 조선피로인의 모국어 능력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管宗次는 1748년(영조 24) 통신사행에 참여한 수행원 朴德源이 일본에 남긴 發口短冊을 소개하고 통신사행원들이 사행중 시도하였던 외국어 습득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7) 기록류

기록물에 관한 연구는 주로 蘇在英, 河宇鳳, 柳鐸一, 韓文鍾, 孫承喆에 의해 이루어졌다.⁴⁰⁾ 조선시대의 통신사 연구 내지 한일관계사 연구에 있어 사행을 통해 일본을 직접 見聞한 통신사 일행의 日本使行錄은 제1차적인 기본사료임에 분명하다. 하우봉은 이들 사행록 가운데 1970년대 출간된 《국역 海行摠載》에 수록되지 않은 사행록 18편을 새롭게 발견하여 소개하였고, 한문종은 조선시대 예조의 典客司에서 편집한 각종 謄錄類의 사료적 성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손승철은 《朝鮮王朝實錄》

화학회.

40) 하우봉, 1986, <새로 발견된 日本使行錄들: <<海行摠載>>의 보충과 관련하여> 《歷史學報》 112.

하우봉, 1991, <通信使謄錄의 사료적 성격> 《韓國文化》 12.

蘇在英, 1991, <《海行摠載》의 檢討> 《韓日文化交流史》, 민문고.

한문종, 1999, <조선후기 일본에 관한 著述의 조사연구-對日關係 謄錄類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86.

柳鐸一, 1984, <한국고서적 일본간행고: 조선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논총》 6·7, 한국문학회, 1984.

손승철, 2000, <조선왕조실록 일본관계기사 내용분석(조선후기편)> 《朝鮮時代史學報》 15, 조선시대사학회.

에 나오는 일본관계기사의 내용을 왕대별로 분석함으로써 통신사를 포함한 조선후기 한일관계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소재영은《海行摠載》에 들어있는 사행록들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통신사의 역사가 한일 外交史임과 동시에 文化交流史라고 보고, 사행록을 통한 비교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민족주의적 한계를 벗어나 편견없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들 연구는 통신사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료들에 관한 소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8) 기타

이외에도 통신사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시도되었다. 우선 통신사에 수행원으로 참여하여 그림을 통하여 문화사질로서의 모습을 과시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 畫員과 그들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있다⁴¹⁾. 그리고 통신사행원들의 服飾에 관한 연구⁴²⁾도 있고, 그들이 타고 갔던 船舶에 관한 연구⁴³⁾, 일본에서 통신사접대에 사용된 음식에 관한 연구⁴⁴⁾ 등이 있다. 이것들은 통신사 연구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繪畫나 服飾史 등 각 분야의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

-
- 41) 洪善杓, 1979, <17·18세기의 한·일간의 繪畫交涉> 《考古美術》 143·144.
 홍선표, 1995, <조선후기 통신사 隨行畫員의 파견과 역할> 《美術史學研究》 205.
 홍선표, 1997, <조선후기 한일간 畫蹟의 연구> 《미술사연구》 11.
 홍선표, 1998, <조선후기 통신사 隨行畫員의 繪畫活動> 《미술사논단》 68.
 김선화, 2001, <조선통신사의 회화 교류> 《동북아문화연구》 1.
 유홍준, 2002, 《화인열전》 1·2, 역사비평사.
- 42) 李京子·弓民峰, 1983, <조선통신사 服飾의 一研究> 《服飾》제7호 83-102.
 金英淑, 1986, <조선시대 通信使 및 隨行員 服飾의 通時的 考察> 《문화재》 19.
 광정숙, 2002, <에도시대의 조선통신사가 본 京都의 服飾文化>, 동서대 석사학위논문.
- 43) 김재근, 1994, <朝鮮後期通信使船:船型과 構造> 《學術院論文集》 33(자연과학편).
- 44) 김상보·장철수, 1999, <朝鮮通信使를 포함한 韓·日관계에서의 飲食文化교류> 《경영학연구》 18-4, 한국경영학회.
 김상보, 2002, <조선통신사를 통해 본 한일 음식문화> 《조선통신사 한일학술대회》, 한일관계사학회.

Ⅳ. 통신사연구의 과제와 전망 -맺음말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한국에서 이루어진 통신사의 연구현황을 정리해보았다. 이제 통신사 연구가 갖고 있는 과제와 전망을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통신사행의 명칭 문제이다. 먼저 명칭론에 대한 제기는 이원순과 하우봉에 의해서 제기되었는데, 통신사라는 외교사행 명칭에 대한 혼란이 통신사를 막부 장군 즉위를 축하하는 정치사절(‘조공사절’)고 보려는 일본측 연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때문이라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신사 연구들이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편의적으로 검토되다 보니 통신사의 파견 배경이나 명칭 등이 제각각이다.⁴⁵⁾ 즉, 한일 양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조선시대 일본의 幕府將軍에게 파견된 사절을 ‘朝鮮通信使’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객관적이고 타당한 용어인가 하는 문제이다. 《朝鮮王朝實錄》이나 《通信使謄錄》 등 관련사료들을 보면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된 사신을 ‘日本通信使’, ‘日本國通信使’ 아니면 그냥 ‘通信使’라고 칭하고 있다. 사신 파견의 목적을 반영하여 ‘回禮使’, ‘通信官’, ‘報聘’, ‘客人護送官’ 등의 다양한 칭호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보내는 사신을 ‘日本通信使’ 또는 ‘通信使’로 부르는 것이 조선시대의 일반적 흐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통신사 각각의 명칭에 대해서도 조선에서는 干支를 붙여 丁未通信使·己亥通信使 등으로 불렀고, 일본에서는 年號를 써서 慶長通信使, 享保通信使라고 사용하였다. ‘日本通信使’가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하는 사절이라는 의미라면 ‘朝鮮通信使’는 ‘조선에서 온 통신사’란 뜻이다. 즉, ‘조선 통신사’는 일본측 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지기 시작한 용어로 지극히 일본사 중심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통신사’는 양국을 왕래하던 사절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용어로는 부적당하며, 특히 국내에서의 사용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양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용어의 성립이 요구된다.

둘째, 통신사를 朝貢使로 간주하려는 시각의 문제이다. 일본은 江戸時代 초기부터 통신사를 內政에 이용하기 위하여 은연중 朝貢使節로 선전하였다. 18세기 중엽 이래 國學이 발전하고, ‘日本書紀의 史觀’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통신사의 조공사절관이 일부에서 대두되었고, 이것이 海防論者와 侵韓論者들에게 계승되어 植民史觀의 일환으

45) 이에 이원순과 하우봉은 조일간에 정치·외교적 상황에 따라 외교사행의 명칭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명칭론을 제기한 바 있다.(하우봉, 1991, <朝鮮後期 韓日關係에 대한 再檢討-사절왕래를 중심으로> 《東洋學》 27-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李元淳, 1991, <朝鮮後期(江戸時代) 韓日交流의 位相>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로 자리를 잡아 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논의는 주춤하였으나 최근 일부 연구자에 의해서 다시 제기 되고 있다.⁴⁶⁾ 이 주장의 근거로 일본의 통신사가 幕府將軍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되었다는 표면적인 使命에 집착한 入貢性과, 통신사에 비견되는 일본의 사절(日本國王使)가 조선에는 파견되지 않았다는 一方性을 들 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조선시대 양국간에 있었던 사절 왕래의 실태를 완전히 도외시킨 것이다.

조선전기 조선국왕사의 일본 막부 파견은 10회 내외인 반면, 일본국왕사의 來聘은 71회나 되고, 일반 통교자를 합하면 5,000여회에 달하고 있다.⁴⁷⁾ 한편 조선후기에 와서 전기와 같은 일본국왕사의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일본측 사절의 상경이 금지되고, 조선측이 접대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이러한 조치는 조선전기 일본 사절의 上京路가 임진왜란 당시 침공로로 이용된 것에 대하여 취해진 전쟁 도발에 대한 응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이에 幕府는 對馬島로 하여금 大差倭를 보내 조선왕실의 경조사 등을 問慰하였는데, 그 점은 조선전기의 일본국왕사와 다름이 없다. 1636년 이후 외교사행에 관한 제도가 개편된 후 일본의 외교사행은 對馬島에서 전담하여 파견하였고, 그 횟수는 총 696회에 달한다. 이를 別差倭라고 하며, 그 가운데 통신사와 장군의 경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大差倭는 102회 도항하였다.⁴⁸⁾ 반면에

46) 통신사를 조공사로 보는 시각은 에도시대부터 있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의 연구로는 荒野泰典의 연구(1988년, 近世日本と東アジア)가 대표적이다. 그는 大君外交論을 설명하면서 통신사에 대하여 “일본은 율령국가 이래 국가이데올로기를 전승하여 조선을 ‘一等下’로 간주하고 柳川事件 이후 幕府는 종래의 조선에 대한 위치규정을 관철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조선통신사는‘入貢’ 혹은 그것에 가까운 犢養스를 가진 사절로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三宅英利도 1607년 회담검쇄환사의 聘禮의식을 설명하면서 초기에는 막부의 응대가 지극히 정중했으나 장군이 자리를 잡은 후에는 三家가 접대를 담당하였는데, 江戸幕府의 조선정책의 추이가 점차厚待의 예는 사라지고 조공의례화되어 간다고 설명하고 있다.(《1985년, 近世日鮮關係史の研究》)또한 이번 통신사 연구사 정리(근세편)에서도 발표문 17쪽 하단에 “유구사절은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1644년 日光山을 참배한 적이 있으며 장군의 권위를 고양하기 위한 활동에 이용당했다. 또한 통신사의 방문이 두절된 후 異國使節의 ‘入貢’이라는 연출은 대부분 유구사절이 그 역할을 담당했던것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통신사가 朝貢使인 듯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47) 최근 일본학자들의 논의 가운데 幕府將軍가 조선에 파견한 외교사절이나 일본에서 도항해 온 통교자 가운데 僞使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고, 일본측의 對朝鮮外交使節과 通交者の 일부를 僞使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자세한 연구가 요구된다.

48) 別差倭와 조선후기 日本國王使에 관해서는 홍성덕, 1992, <17세기 別差倭의 渡來와 韓日關係> (《全北史學》 15)와 1996, <朝鮮後期 日本國王使 檢討>(《韓日關係史研究》 6)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행은 통신사 12회, 문위행 54회에 불과하다.

셋째, 통신사에 대한 시대구분의 문제이다. 三宅英利는 그의 저서에서 크게는 室町幕府期와 豊臣政權期 그리고 徳川幕府期로 나누었다. 그리고 조선후기(徳川幕府期)의 통신사행에 대해서는 일본 幕藩體制의 추이를 기준으로 하여 國交再開期(1회~3회), 전기안정기(4회~7회), 개변기(8회), 후기안정기(9회~11회), 쇠퇴기(12회)의 5기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이는 통신사에 대한 최초의 시대구분일 뿐만 아니라 통신사행의 역할과 성격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국내상황을 결부시켜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사에 그대로 채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따라서 통신사의 변화에 따른 시기구분을 한국사의 전개 속에서 재론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한태문은 통신사 사행문학의 통시적 고찰을 시도하면서 交隣體制 摸索期(1607~1624), 交隣體制 確立期(1636~1655), 交隣體制 安定期(1682~1764), 交隣體制 瓦解期(1811)로 구분하였다.⁴⁹⁾ 그러나 한태문의 통신사 시기구분은 조선후기에 한정된 것으로, 조선 전기 통신사를 함께 아우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다양한 사료의 발굴과 충실한 사료의 이용이 요구된다. 각종 일본사행록, 규장각 소장의 對日關係 謄錄類 등의 史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쪽의 통신사관련 사료가 충실히 이용되고 있지 않다. 또한 국사편찬위원 소장 對馬島宗家文書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사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들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⁵⁰⁾

다섯째, 통신사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의 저변확대와 주제의 편식성을 벗어날 것이 요구된다. <표 1>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주로 상호인식·문화교류 등에 편향되어 있어서 ‘통신사=文化使節’이라는 도식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통신사는 ‘幕府將軍襲職’이라는 외교의례를 표면에 내세울 뿐 양국의 외교적 현안들을 해결하는 매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통신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연구 성과가 요구된다. 특히 ‘善隣友好’의 상징이었던 통신사의 역사성이 주로 일본인에 의해서 평가되었다는 것 자체가 왜곡과 편향의 우려를 낳고 있다. 평가의 불균형은 곧 연구의 불균형에 기이한 만큼, 통신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주제의 확대도 요구된다. 즉, 조선시대 통신사가 지닌 여러 가지 측면과 의의를 생각해볼 때 보다 깊이 있고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예컨대 통신사의 시행에 참여함으로써 ①통신사의 종말과 근대성에 관련된 문제로, 18세기까지

참고.

49) 한태문, 1995, <朝鮮後期 通信使 使行文學 研究>,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50) 손승철, 2002, <조선시대 通信使研究의 회고와 전망> 《韓日關係史研究》 16, 58쪽.

는 통신사를 중심으로 善隣友好 관계 및 문화교류가 강조되다가 갑자기 19세기에 들어 양국관계가 침략과 갈등구조로 변화하게 된 원인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즉, 1811년 對馬島 易地通信 이후에 전개되었던 大阪 易地通信을 비롯한 일련의 통신사 교섭과정과 조선침략론(征韓論)의 대두라는 일본국내의 정치상황 속에서 통신사가 단절하게 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조선침략론에 대한 성격규명이 이루어질 때 침략과 피침략이라는 19세기 이후 양국관계의 갈등구조가 설명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며, 통신사 단절도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② 조선의 對淸使節인 燕行使·일본에서 조선에 파견된 大差倭·琉球使 등과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비교(사행파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諸 절차와 외교의례, 정치적 비중·경제적 영향의 차이 등)가 요구된다. ③ 통신사의 시행과정에서 교섭에 참여하였던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 가운데 역관은 통신사행 파견에 관련된 사전 업무협의를 주도하였고, 통신사행 시에는 三使의 일정 및 업무협의를 위한 통역 및 실무조정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사행을 통한 양국의 외교적 현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譯官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었던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행역관들의 사회·경제적인 배경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통신사를 둘러싸고 사절의 파견 준비와 실무 교섭하던 공간인 왜관에 대한 고찰도 요구된다. ⑤ 통신사로 참여한 일행들이 귀국한 후에 일본에서 보고 경험한 것이 조선사회의 對日認識과 정책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⑥ 양국의 천하관(華夷觀)과 조선 지식인들의 일본인식에 대한 고찰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선후기에 있었던 화이관의 변화가 실학의 근대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가 되어 있을 뿐 당시 일본 내에서 전개된 화이관의 변화와 비교하여 진행된 연구는 없다. 따라서 통신사행이 양국의 문화발전이나 화이관 등의 사상적 변화에 끼친 영향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⑦ 문화교류의 측면에 관한 고찰에 있어서 기존의 筆談 唱和를 통한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타 분야 예컨대, 종교·음악·미술·무용·생활 습속·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이루어진 양국교류의 양상과 특징 및 그것들을 통한 상호인식의 변화과정의 객관적 고찰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⑧ 통신사행의 준비와 시행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조달과 더불어 경제적인 측면의 연구(경제적 부담과 그 효과)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사 안에서 국내 정세와 통신사 파견의 관계, 지배세력과의 연관성, 대중국외교와의 관련성 등의 검토가 요망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신사가 조선과 일본 양국이 연출한 국제적 행위였던 만큼, 통신사의 연구도 자국 중심에서 보다는 양국사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한국내의 연구목록

《저서 및 번역서》

- 中村榮孝 外著・金龍善 譯, 1982, 《朝鮮通信使; 일본은 우리가 키웠다》, 東湖書館
金義煥, 1985, 《朝鮮通信使의 발자취》正音文化社
金泰俊 外編, 1991, 《韓日文化交流史》민문고
三宅英利(손승철 譯), 1991, 《近世韓日關係史研究》, 이론과 실천
李元植, 1991, 《朝鮮通信使》대우학술총서, 민음사
三宅英利(趙學允 譯), 1994, 《近世日本과 朝鮮通信使》, 경인문화사
신성순·이근성, 1994, 《朝鮮通信使》, 중앙일보사
孫承喆, 1994,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三宅英利(김세민 외 옮김), 1996, 《조선통신사와 일본》, 지성의 샘
李慧淳, 1996, 《朝鮮通信使의 문학》, 이화여대출판부
朴贊基, 2001, 《朝鮮通信使と日本近世文學》조선통신사와 일본근세문학, 보고서, 2001

《논문》

- 장덕순, 1962, <日本紀行의 日東壯遊歌> 《현대문학》 95
이현중, 1964, <朝鮮前期 對倭使節派遣의 種別과 意義> 《史學研究》 17, 한국사학회, 1964
(《조선전기 대일교섭사연구》한국연구원, 1964에 <對倭使節派遣>으로 수록됨)
김용기, 1969, <壬辰倭亂의 被擄人 刷還關係 新資料《海東記》考> 《대구사학》 1, 대구사학회
김중옥, 1973, <朝鮮後期通信使點描> 《국회도서관보》 9·10
이원식, 1973, <純祖11年 辛未日本通信使差遣에중심으로> 《史學研究》 23
이준길, 1973, <日本派遣 朝鮮通信使의 歷程> 《도서관》 28-2, 국립중앙도서관
최박광, 1973, <18世紀 韓日間의 漢文學 交流-淸泉 申維翰과 新井白石-> 《전통문화연구》
1, 명지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전해중, 1977, <壬亂後의 對日關係>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홍선표, 1979, <17·18세기의 한·일간 繪畫交流> 《考古美術》 143·144
정현재, 1980, <朝鮮初期의 敬差官에 대하여> 《慶熙史學》 6, 7, 8
芳賀登, 1982, <朝鮮通信使의 발자취> 《한국학논집》 2,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 이경자·弓民峰, 1983, <조선통신사 服飾의 一研究> 《服飾》제7호 83-102
- 柳鐸一, 1984, <한국고서적 일본간행고:조선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논총》 6,7(한국문화회)
- 이민호, 1984, <조선후기의 통신사행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이원식, 1985, <조선통신사의 遺墨-일본에 남아 있는 書畵를 중심으로> 《여행과 체험의 문학·일본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임성철, 1985, <朝鮮通信使往還における日本側の接待問題> 《論文集》 3 부산외대
- 임성철, 1985, <朝鮮通信使派遣路交渉狀況의 展開> 《釜山外大文化研究》 부산외국어대
- 하우봉, 1986, <새로 발견된 日本使行錄들:《海行摠載의 보충과 관련하여》> 《歷史學報》 112, 1986
- 이성후, 1986, <조엄과 김인겸의 對日觀 연구> 《금오공대 논문집》 7, 금오공과대학
- 송민, 1986, <朝鮮通信使의 일본어 접촉> 《어문학논총》 5,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 김영숙, 1986, <朝鮮時代 通信使 및 隨行員 服飾의 通時的 考察> 《문화재》 19, 문화재관리국
- 송민, 1987, <朝鮮通信使의 母國語體驗> 《어문학논총》 6,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 김윤향, 1987, <18세기 申維翰의 일본인식에 관한 고찰-통신사기록 '海遊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임성철, 1987, <朝鮮通信使路程記研究> 《釜山外大論叢》 5 부산외국어대
- 김정일, 1988, <朝鮮後期對日交隣政策研究-1936年 通信使와 朝鮮의 對馬島認識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태준, 1988, <18세기 한일문화교류의 양상:江關筆談을 중심으로> 《논문집》 18, 숭실대학교
- 이혜순, 1988, <申維翰의 《海遊錄》연구> 《論文集》 18, 숭실대, 1988
- 소재영, 1988, <18세기의 일본체험-《日東壯遊歌》를 중심으로-> 《논문집》 18, 숭실대학교
- Ronald P. Toby(朴銀順 역), 1988, <朝鮮通信使와 近世日本의 庶民文化-회화;민화;제례제언> 《동양학》 18,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 박창기, 1989, <朝鮮時代 通信使와 日本의 文壇-1711년 使行時 林家 및 木下順庵門과의 交流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23, 한국일본학회
- 한문중, 1989, <조선초기 李藝의 對日交涉活動에 대하여> 《全北史學》 11·12 전북대사학회
- 하우봉, 1989, <元重舉의 和國志에 대하여> 《全北史學》 11·12 전북대사학회
- 김영규, 1990, <朝鮮後期の 對日抗禮外交와 對馬東藩意識-通信使行錄을 中心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순순, 1990,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제술관에 대한 일고찰> 《전북사학》 13, 1990
- 홍성덕, 1990, <朝鮮後期 問慰行에 대하여> 《韓國學報》 59, 일지사
- 김석희, 1991, <조선후기 通信使에 대하여> 《조선후기 한일관계학술회의강연회발표요지》,

한국사학회

- 金義煥, 1991, <부산의 草梁倭館과 對日通信使外交> 《韓日文化交流史》, 민문고
- 小林幸夫, 1991, <朝鮮通信使와 民衆> 《일본학연보》
- 蘇在英, 1991, <《海行摠載》의 檢討> 《韓日文化交流史》, 민문고
- 박창기, 1991, <조선시대 通信使와 일본 荻生徂徠門의 문학교류-1711년 使行時의 교류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27, 한국일본학회
- 辛基秀, 1991, <通信使의 길에 비친 韓日交流> 《韓日文化交流史》, 민문고
- 李元植, 1991, <朝鮮通信使의 訪日과 문화교류-使行錄과 <필담창화집을 중심으로>> 《보산학보》 2, 보산학술연구소
- 이원식, 1991, <통신사가 남긴 문화> 《한일교류사》, 민문고
- 이원식, 1991, <通信使行과 文化交流> 《韓·日關係 學術會議 발표요지》, 한국사학회
- 이혜순, 1991, <18세기 한일문사의 교류양상-己亥使行時 韓日文士の<唱酬集>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2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 이 훈, 1991, <朝鮮譯官使와 對馬島> 《朝鮮後期 韓日關係史學術講演會 發表要旨》, 한국사학회
- 정성일, 1991, <對馬島易地聘禮에 참가한 通信使> 《호남문화연구》 20
- 정성일, 1991, <易地聘禮 실시전후 對日貿易動向> 《經濟史學》 15
- 최영희, 1991, <조선후기 通信使와 倭館의 역할> 《조선후기 한일관계학술회의강연회발표요지》, 한국사학회
- 하우봉, 1991, <通信使膳錄의 사료적 성격> 《韓國文化》 1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하우봉, 1991, <朝鮮後期 韓日關係에 대한 再檢討-사절왕래를 중심으로> 《東洋學》 27-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황창윤, 1991, <조선통신사인식에 대한 재검토>,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 이훈, 1992, <朝鮮後期 對日外交文書の 사료적 특징>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下
- 이성후, 1992, <金仁謙의 歷史認識> 《韓國學論叢》, 향산변정환박사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 지두환, 1992, <世宗代 對日政策과 李藝의 對日活動> 《韓國文化研究》 5 부산대
- 한문중, 1992, <조선전기의 對馬島敬差官> 《全北史學》 15, 전북대 사학회
- 김정일, 1993, <1636년 通信使와 조선의 대마도인식> 《淑明韓國史論》 창간호
- 이민호, 1993, <壬亂과 韓·中·日의 外交關係>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해군군사연구실
- 강신향, 1993, <韓日兩國 譯官에 대한 비교연구> 《인문과학》 23,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 이훈, 1993, <朝鮮後期 對日外交文書-書契式的 定着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4 한국고문서학회

- 김문자, 1994, <島井宗室과 1590년 通信使 派遣問題에 대해서> 《詳明史學》 2
- 하우봉, 1994, <元重舉의 日本認識> 《韓國史學論叢》, 이기백선생고회기념논문집, 1994
- 하우봉, 1994, <조선후기 實學과 古學의 비교연구시론> 《한일관계사연구》 8, 한일관계사학회
- 손승철, 1994, <조선후기 脫中華의 交隣體制的 독립성과 허구성> 《國史館論叢》 57
- 김재근, 1994, <朝鮮後期通信使船:船型和 構造> 《學術院論文集》 33, 자연과학편, 1994
- 이혜순, 1994, <17세기 통신사행집단의 문학과 의식세계-南龍翼의 <壯遊>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17
- 임형택, 1994, <癸未通信使와 실학자들의 일본관> 《창작과 비평》 1994년 가을호
- 손승철, 1995, <조선시대 日本天皇觀의 유형적 고찰> 《史學研究》 50
- 이재원, 1995, <18세기 일본식직인의 조선인식에 관한 일고찰:雨森芳洲와 新井白石의 조선인식을 중심으로>,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 1995, <18세기 朝鮮通信使 製述官 및 書記의 文學世界:서얼의 신분과 문학관을 통 해> 《溫知論叢》
- 홍선표, 1995, <조선후기 通信使 隨行畫員의 파견과 역할> 《미술사학연구》 205
- 仲尾宏, 1995, <朝鮮朝日本通信使의意義と日韓의將來> 《日本學報》, 경상대일본문화연구소
- 한태문, 1995, <朝鮮後期 通信使 使行文學 研究>, 부산대박사학위논문
- 한태문, 1995, <통신사행록에 반영된 對日 민속관> 《조전장관진교수정년기념 국문학논총》
- 한태문, 1996, <조선후기 通信使 使行文學의 特徵과 文學史的 意義> 《동양한문학연구》 10
- 이동찬, 1996, <癸未 通信使行 記錄의 장르選擇:<海槎日記>와 <日東壯遊歌>를 중심으로> 《韓國文學論叢》 18
- 김성진, 1996, <朝鮮後期 通信使의 紀行詩文에 나타난 日本觀研究> 《陶南學報》, 1996
- 김성진, 1996, <조선후기 通信使의 日本文學認識> 《韓國文學論叢》 18
- 田中敏昭, 1996, <壬亂前的 豐臣政權과 對馬島主宗氏의 朝鮮外交:總無事令을 中心으로>, 단국대석사학위논문, 1996
- 한문중, 1996, <조선전기 對日外交政策 研究-對馬島와의 관계를 중심으로>전북대박사학위논문
- 한태문, 1997, <甲子 通信使行記 <東槎錄>연구> 《人文論叢》 50, 부산대학교
- 한태문, 1997, <李彥瑨의 文學觀과 通信使行에서의 세계인식> 《國語國文學》 34, 문창어문학회
- 한태문, 1997, <朝鮮後期 對日 使行文學의 實證的 研究-釜山 永嘉臺 海神祭와 祭文을 중심으로> 《東洋漢文學研究》 11
- 배수영, 1997, <趙嚴의 海槎日記를 통해 본 일본인식>,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원식, 1997, <通信使記錄을 통해 본 對日本認識> 《國史館論叢》 76
- 金瑞蘭, 1997, <조선후기 通信使隨行 倭學譯官 研究>,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김상보·장철수 1999, <朝鮮 通信使를 포함한 韓·日 관계에서의 飲食文化 교류> 《경영학연구》 13-4, 한국경영학회
- 홍선표, 1997, <조선후기 한일간 畫蹟의 연구> 《미술사연구》 11
- 홍선표, 1998, <조선후기 통신사 隨行畫員의 繪畫活動> 《미술사논단》 6
- 홍성덕, 1998, <十七世紀 朝·日 外交使行 研究>,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 홍성덕, 1998, <통신사는 신의의 상징인가 조공의 상징인가> 《한국과 일본-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2, 자작나무, 1998
- 한태문, 1998, <《東槎錄》所載 書簡에 반영된 韓日 文士의 교류양상 연구> 《韓國文學論叢》 23, 한국문학회
- 이민호, 1998, <孝宗朝의 對日外交> 《東西史學》 4
- 최종일, 1998, <朝鮮通信使의 日光山致祭 연구>,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 홍성덕, 1999, <조선후기 對日 외교사절 問慰行의 渡航人員 분석> 《한일관계사연구》 11
- 이원식, 1999, <한일선린외교와 조선통신사> 《史學研究》 58·19합집(내운최근영박사정년 기념논문집), 한국사학회
- 방기철, 1999, <鶴峯 金誠一の 日本觀>,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혜순, 1999, <室鳩巢의 賦三韓事蹟詩 小考-18세기 문사의 한국사인식> 《冠嶽語文研究》 18
- 장용걸, 1999, <조선통신사의 의례성에 관한 고찰> 《교육이론과 실천》 9,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9
- 정장식, 1999, <1636년 通信使의 日本認識> 《일본문화학보》, 한국일본문화학회
- 한문중, 1999, <조선후기 일본에 관한 著述의 조사연구-對日關係 謄錄류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86, 1999
- 홍성덕, 2000, <조선후기 對日外交使節 問慰行 研究> 《國史館論叢》 93
- 원재연, 2000, <조선후기 서양인식의 변천과 대외개방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문자, 2000, <임진왜란에 있어서 명·일 강화교섭과 조선> 《사명당 유정》
- 강재연, 2000, <1764年度の 朝鮮通信使의 日本使行에 대하여> 《亞細亞文化研究》 4
- 김성진 2000, <1711년 通信使와 朝鮮의 對應> 《日語日文學研究》 40, 한국국어일본문화학회
- 정장식, 2000, <1655년 通信使行과 日本研究> 《日本學報》 44, 한국일본학회
- 管宗次, 2000, <朝鮮通信使의 殘した發句短冊について> 《일본문화학보》 9, 한국일본문화학회
- 한태문, 2000, <[海行摠載]소재 使行錄에 반영된 일본의 通過儀禮와 사행원의 인식> 《한국문학논총》 26, 한국문학회
- 한태문, 2001, <17세기 通信使 使行文學의 전개와 문학사적 의의> 《인문논총》 57,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정장식, 2001, <1636년 通信使의 日本認識> 《韓日關係史研究》 11, 한일관계사학회
- 정장식, 2001, <癸未(1643년)通信使行의 日本認識> 《일본문화학보》 10, 한국일본문화학회
- 정장식, 2001, <임술사행과 조일관계> 《일본학보》 47, 한국일본학회
- 김선화, 2001, <조선통신사의 회화 교류> 《동북아 문화연구》 1,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정장식, 2002, <1711년 通信使와 朝鮮의 對應> 《일어일문학연구》 40, 한국일어일문학회
- 곽정숙, 2002, <에도시대의 조선통신사가 본 京都의 服飾文化> 동서대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식, 2002,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대일인식> 《대동문화연구》 4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 김상보, 2002, <조선통신사를 통해 본 한일 음식문화> 《조선통신사 한일학술대회》, 한일관계사학회
- 유홍준, 2002, 《화인열전》 1·2, 역사비평사
- 이자연, 2002, <朝鮮前期 朝鮮通信使와 日本使臣 간의 交易品을 통하여 본 服飾文化研究-일본으로부터의 收入品을 중심으로-> 《服飾》 52-4, 한국복식학회
- 진해옥, 2002, <조선통신사와 조일관계>, 인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승희, 2002, <己亥通信使의 儀式改正에 대한 새로운 검토> 《韓日關係史研究》 16, 한일관계사학회
- 정희선, 2002, <조선통신사 닛코(일광)유람의 문화관광학적 고찰> 《문화관광연구》 4-2, 한국문화관광학회
- 손승철, 2003, <조선시대 '通信使'개념의 재검토> 《조선시대사학보》 27, 조선시대사학회학회
- 오바타미치히로, 2003, <신유한의 《海遊錄》에 나타난 일본관과 그 한계> 《韓日關係史研究》 19